

기초교양 교과목의 편성 및 운영개선방향 : 실용영어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장 세 은*

Improvement Direction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mpulsory Curriculum in Liberal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Integrative Control System for Practical English Education

Se-Eun Jhang

Abstract

The common compulsory curriculum in liberal education which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Maritime University has, as other universities have in common, is now composed of two territories: Native Speaker English Conversation and Introduction to Computer. These two subjects are sub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levels up to four or six levels according to the scopes of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and computers. Especially, we have to teach and evaluate the four areas of English skills such as listening,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at a college level.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ive control system for practical English education.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is system setting up the standard of the different levels of English abilities with regard to computer based tests or Internet based tests of English. In order to do this, in section 2 and section 3 we analyse the English abilities of freshmen of our college with the data of the rating scales of College Academic Aptitude Test and then we examine the presen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mpulsory curriculum in liberal education of our college. In section 4, we introduce the two remarkable instances of integrative control systems developed by a national university and a private university. Section 5 summarizes this research and gives a few improvement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directions of the nex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practical English education in our college.

Key words : compulsory curriculum in liberal education, practical English education, rates of College Academic Aptitude Test, integrative control system, computer based test, Internet based test.

1. 서 론

우리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이 혼재하는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어렵지만 우리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해양특성화에 발맞추어 해양산업의 인문·사회계열인 국제경제·통상·해운 경영분야, 해사법분야, 해양문화 및 국제지역분야 그리고 이러한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외국어분야의 전문가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국제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대학교내에서의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교양대학이나 교양(과정)학부가 없는 우리대학교에서는 일반교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의 학부(과)가 있는 우리대학이 교양과정의 교과목개설 및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대학 종래의 교양과정부가 담당했던 모든 전공학생들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기초필수교과목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대학의 명칭인 “국제대학”이 갖는 이미지에 맞는 영어교육체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양필수과목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간의 학습수준차이가 고려된 표준화 및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기초교과목운영을 위한 과학적 자료 확보에 요긴한 학습, 평가, 관리의 표준화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초필수교과목인 4/5를 차지하는 <교양영어>의 표준화 및 맞춤형 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제2절에서는 우리대학 신입생들의 외국어(영어)영역의 수능등급 영어실력을 조사·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기초교양필수과목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양영어프로그램중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대학의 경우는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의 교양영어교육과 실용컴퓨터교육의 시스템을, 사립대학의 경우는 신라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5절은 본 논문의 요약 부분으로 우리대학의 기초교양 영어교과목의 재편성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한다.

2. 국제대학 신입생 외국어(영어) 영역의 수능등급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어(영어)영역 점수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9개 등급의 등급구분에 따른 응시자 인원과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¹⁾

<표 1> 연도별 외국어(영어) 영역 등급 구분 응시자 인원 및 비율

등급	2004년 인원(%)	2005년 인원(%)	2006년 인원(%)	2007년 인원(%)
1	31,953 (4.98)	23,863 (4.18)	25,615 (4.66)	25,899 (4.74)
2	59,250 (9.27)	48,316 (8.47)	38,608 (7.03)	34,834 (6.38)
3	76,708 (12.00)	66,462 (11.65)	62,724 (11.41)	69,201 (12.67)
4	105,732 (16.54)	92,500 (16.22)	92,923 (16.91)	103,520 (18.95)
5	118,980 (18.61)	116,385 (20.40)	116,413 (21.18)	95,258 (17.44)
6	110,441 (17.27)	96,374 (16.89)	87,700 (15.96)	97,263 (17.80)
7	77,374 (12.10)	68,452 (12.00)	69,267 (12.60)	62,342 (11.41)
8	39,003 (6.10)	39,509 (6.93)	34,718 (6.32)	38,311 (7.01)
9	19,997 (3.13)	18,570 (3.26)	21,576 (3.93)	19,693 (3.60)
소계	641,442 (100)	572,436 (100)	551,550 (100)	548,3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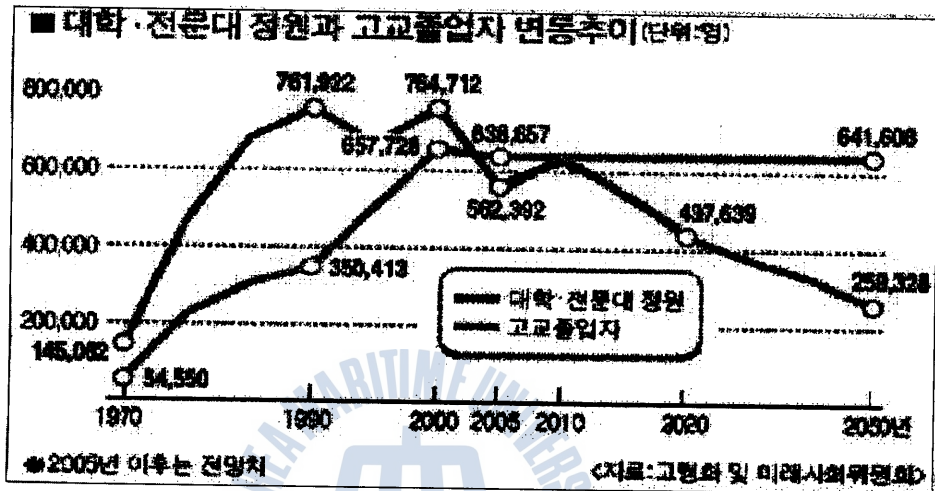
등급은 계열별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4%가 1등급, 다음 7%(누적 11%)가 2등급, 12%(누적 23%) 3등급, 17%(누적 40%) 4등급, 20%(누적 60%) 5등급, 17%(누적 77%) 6등급, 12%(누적 89%) 7등급, 7%(누적 96%) 8등급, 4%(누적 100%) 9등급으로 매겨진다. 각 등급간 경계점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등급으로 기재된다.²⁾

1) 통계출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이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출처는 그대로 가져왔으나 2004년도 통계는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를 합산하여 비율을 다시 계산하였다.

2) 수능9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하는 제도로,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도입되었다. 등급제는 수능 총점 소수점 이하 몇 자리에서 당락이 좌우돼온 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응시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응시자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인원감소는 대학, 전문대 정원과 고교졸업자 변동추이를 나타내는 아래의 <표 2>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표 2> 대학, 전문대 정원과 고교졸업자 변동추이



200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대학정원 대비 대학입학대상의 고교졸업자 인원의 감소는 입학자들의 기초학문 능력이 고르지 못해 대학 교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 지원자 수의 하락으로 인한 입학자의 영어능력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대학교에 등록된 국제대학의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수능9등급제에 의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간의 외국어(영어)영역 점수에 대한 연도별 응시자 인원과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존의 수능 의존도를 줄이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능 9등급제는 전체 수능 응시학생을 400점 만점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학생이 속해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성적표에 총점 대비 누가분포표는 공개되지 않는다. 영역별로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점수 등이 기재된다.

<표 3> 국제대학 연도별 외국어(영어)영역 수능등급 분포인원 및 비율³⁾

등급	2004년(368명)		2005년(376명)		2006년(381명)		2007년(384명)		4년간(1450명)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7	1.9	5	1.3	5	1.3	4	1.2	21	1.4
2	68	18.5	43	11.4	36	9.4	35	10.5	182	12.5
3	109	29.6	131	34.8	106	27.8	108	32.3	454	31.1
4	129	35.1	127	33.8	158	41.5	156	46.7	570	39.1
5	46	12.5	50	13.3	57	15.0	24	7.2	177	12.1
6	9	2.4	16	4.3	14	3.7	7	2.1	46	3.2
7	0	0	3	0.8	5	1.3	0	0	8	0.5
8	0	0	1	0.3	0	0	0	0	1	0.1
9	0	0	0	0	0	0	0	0	0	0

2004년도는 신입생 모집단위가 국제대 전체 대단위모집단위였고 학부(과)별 모집단위의 변경은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 외국어(영어)영역에서만 고려하여 2004년도와 그 이후의 영어성적을 비교해보면 첫째, 2004년도 대단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평균 영어성적은 3등급이내에 있지만 학부(과)별로 모집한 2005년도부터 최근 2007년까지 평균 영어성적은 3등급~4등급사이에 있다. 둘째, 대단위 모집인 2004년에는 1등급~2등급 사이의 영어 상위권의 분포가 20.4%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학부(과)별 모집단위로 들어온 영어 상위권의 분포는 10.7%에서 12.7%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해 그 비율이 급감하였다. 한편 2004년부터 최근 2007년까지의 4년간의 대학 전체적인 분포에서 영어 실력의 편차를 고려하면 1등급~2등급의 상위권은 13.9%이면서 5등급~7등급의 하위권도 16%를 차지한다.

학부(과)별로 세분화하여 보여주는 외국어(영어)영역수능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3) 연도별 입학정원이 다른 이유는 앞 연도에서 미등록인원이 차기연도에 충원되어지기 때문에 점차로 늘어났고 2007년에 급감하게 입학정원이 줄어든 이유는 입학정원의 15%를 감축하였기 때문이다.

〈표 4〉 국제대학 학부(과)별 외국어(영어)영역 수능등급 분포인원 및 비율

연도	등급	해운경영		법학		국무경		통상행정		영문		동아시아		유럽		소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05	1	1	1.6	0	0	1	1.4	0	0	3	7.1	0	0	0	0	5	13.3
	2	9	14.3	4	7.5	10	13.4	9	11.0	8	19.0	2	6.7	1	3.1	43	11.4
	3	28	44.4	17	32.1	28	37.8	25	30.5	18	42.9	8	26.7	7	21.9	131	34.8
	4	18	28.6	22	41.5	21	28.4	28	34.1	11	26.2	15	50.0	12	37.5	127	33.8
	5	4	6.3	8	15.1	13	17.6	13	15.9	0	0	3	10.0	9	28.1	50	13.3
	6	3	4.8	1	1.9	1	1.4	5	6.1	2	4.8	2	6.7	2	6.2	16	4.3
	7	0	0	1	1.9	0	0	1	1.2	0	0	0	0	2	6.2	3	0.8
	8	0	0	0	0	0	0	1	1.2	0	0	0	0	1	0	1	0.3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6	1	2	3.2	2	3.6	0	0	1	1.2	0	0	0	0	0	0	5	1.3
	2	13	20.6	2	3.6	7	9.8	8	9.5	2	4.8	3	8.8	1	3.1	36	9.4
	3	18	28.6	12	21.8	19	26.8	21	25.0	18	42.8	4	11.8	14	43.8	106	27.8
	4	20	31.7	27	49.1	32	45.1	38	45.2	17	40.5	15	44.1	9	28.1	158	41.5
	5	9	14.3	7	12.8	10	14.1	10	11.9	5	11.9	9	26.5	7	21.9	57	15.0
	6	1	1.6	3	5.5	3	4.2	4	4.8	0	0	2	5.9	1	3.1	14	3.7
	7	0	0	2	3.6	0	0	2	2.4	0	0	1	2.9	0	0	5	1.3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7	1	2	3.3	0	0	1	1.5	1	1.6	0	0	0	0	0	0	4	1.2
	2	12	20.0	1	2.1	12	17.6	4	6.3	4	12.5	2	6.5	0	0	35	10.5
	3	18	30.0	16	33.3	17	25.0	26	40.6	13	40.6	9	29.0	9	29.0	108	32.3
	4	26	43.4	29	60.4	29	42.6	25	39.1	12	37.5	15	48.4	20	64.5	156	46.7
	5	2	3.3	2	4.2	8	11.8	5	7.8	1	3.1	4	12.9	2	6.5	24	7.2
	6	0	0	0	0	1	1.5	3	4.6	2	6.3	1	3.2	0	0	7	2.1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4등급의 분포가 연도별로 127명(33.8%) - 158명(41.5%) - 156명(46.7%)로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 눈에 띄게 점차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을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학부(과)별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의 상위권의 분포 추이를 보면 해운경영학부는 10명(15.9%) - 15명(23.8%) - 14명(23.3%)로 대학에서 최고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유럽학과는 1명(3.1%) - 1명(3.1%) - 0명(0%)로 최저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리고 대학 전체적으로 보아도 상위권의 분포는 연도별로 48명(12.7%) - 41명(10.7%) - 39명(11.7%)로 한 개 분반을 형성할 정도의 숫자를 구성한다. 한편 5등급에서 8등급까지 하위권의 분포추이를 학부(과)별로 보면 최근 2007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적은 분포를 갖지만 대학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31명(9.3%)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대학 신입생의 최근 4년간 영어 평균성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위의 <표3>과 <표4>에서 논의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대학 신입생 외국어(영어)영역 수능등급으로 분석한 연도별(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이에 따른 주요 특징
 - (a) 최근 4년간 영어 평균성적은 3등급이내에서 3등급과 4등급사이로 하향되어 4등급의 분포가 가장 많이 증가함으로써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 (b) 영어 상위권인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의 분포의 비율이 2004년도에는 75명(20.4%)에서 2005년도 48명(12.7%) - 2006년도 41명(10.7%) - 2007년도 39명(11.7%)으로 급감하고 있지만 한 개 분반을 형성할 정도의 숫자를 구성한다.
 - (c) 영어 하위권인 5등급이하의 가장 최근 2007년에는 분포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31명(9.3%)을 차지하고 있어 한 개 분반을 형성할 정도의 숫자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위의 (1)에서 우리는 신입생의 1학년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교양영어 수업운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
 - (a) 상위권 1개 분반과 하위권 1개 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1등급~2등급의 상위권 학생의 영어실력과 5등급이하의 하위권 학생의 영어실력의 편차가 심하므로 교양영어 수업을 운영할 때 최소한 우열반을 구성하여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
 - (b) 5등급이하의 하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4등급의 평균성적에 몰려 있는 중위권의 학생이더라도 영어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 국제대학 기초교양 교과목의 운영현황

각 대학교마다 필수교양 교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실용영어와 실용컴퓨터 두 과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현재 우리대학에서도 실용영어와 실용컴퓨터를 강조하여 <원어민영어회화I>, <원어민영어회화II>, <교양영어I>, <교양영어

II>, <전산개론> 다섯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대학 기초교양 필수교과목인 위의 다섯 과목은 1학년1학기에는 <원어민영어회화I>, <교양영어I>, <전산개론> 세 과목이 각 2학점 2시간 총 6학점 6시간을 1학년2학기에는 <원어민영어회화II>, <교양영어II> 두 과목이 각 2학점 2시간 총 4학점 4시간으로 개설된다. 각 교과목의 분반은 학과 단위나 60명이상의 학부인 경우는 2개 분반으로 나누어서 10개분반으로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영어회화 분반도 행정편의상 10개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실시된 <원어민영어회화I>과 <원어민영어회화II>인 영어회화의 경우 01분반에서 05분까지는 외국인객원교수가 담당하고 나머지 5개분반은 영어영문학과 원어민시간강사가 담당하였다. <교양영어I>과 <교양영어II>의 영문독해의 경우 매학기 1개 분반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담당하였고 나머지 분반은 시간강사가 담당하였다. 영어회화와 교양영어의 담당교수가 객원교수나 전임교수가 분반을 맡아 강의를 하지만 강의와 평가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많은 분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간의 정기모임이나 지침서는 없었고 수준이 같은 교재를 객원교수나 전임교수가 선정하여 모두 같은 교재로 강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산개론>의 실용컴퓨터의 경우는 두 개의 50석 규모의 Lab실에 맞게 영어회화와 같은 10개 분반으로 나누어 확일적으로 시간강사가 강의를 하였다.

실용영어와 실용컴퓨터의 강의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분반으로 강의하지 않고 행정편의상 분반으로 나누어 강의함으로써 교수가 강의시 평균성적에 맞게 강의하면 어느 수준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매우 따분한 시간이 되거나 실력 있는 학생위주로 강의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잃게 되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대학에서는 기초 필수교양교과목들을 통합관리하여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용영어나 실용컴퓨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영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영어영문학과 전임교수의 교양교육의 한 학기 의무담당으로 동일교재선정 수준의 최소관리와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도입 등은 교양교육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요즈음 신입생 중에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 입학 이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입학이전이나 가을학기 이전에 우리대학에 개설된 실용영어의 목표수준에 도달하거나 목표를 초과한 영어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고 있거나

영어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산개론이나 영어회화/교양영어의 수업목표에 이미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자격증이나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인정하는 기초교양필수과목 학점대체인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일 교과목을 수준별로 강의하기 위한 우열반의 운영은 현행 성적평가방법인 모든 교양과목의 상대평가로 상위권/중위권/하위권 모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좋은 방법이 못된다.

4.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 표준화 시스템

최근 대부분의 국립대와 사립대에서는 교양영어교육 변화를 위한 연구가 학교정책의 주요과제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학교별로 가지고 있었던 교양영어교육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교양학부나 교양대학체계를 도입하거나 교양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원 하에 체계적으로 교양영어 교육을 다시 설계하고 연구하고 있다.⁴⁾

특히 최근 토플과 토익의 영어공인시험의 iBT(Internet Based Test: 인터넷기반시험)제도 정착으로 대학에서는 발빠르게 인터넷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운영과 온라인상에서 실용영어를 학습시키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어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iBT 대비용 실용영어 수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이나 도입은 정규교과과정의 가상강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실력점검을 위한 CBT(Cmoputer Based Test: 컴퓨터기반시험) 또는 iBT 모의시험이나 수준별 수업을 위한 분반배치시험뿐만 아니라 정규교과과정 하나의 보조학습 수단으로 학생의 단점을 On-line으로 추적하여 계속적으로 오류를 점검하여 어학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대 교양교육원의 실용영어와 실용컴퓨터교육 현황과 신라대 교양학부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을 소개

4) 부산지역의 타국립대의 경우, 부산대는 아래 본문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기초필수교양과목으로 수준별로 단계를 정하여 자체개발한 CBT(컴퓨터 기반 시험) 영어시스템의 일환인 환태평양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경대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용영어회화를 교양필수과목으로 그리고 중급과 고급영어회화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두 학교는 공인영어성적을 교양필수과목의 학점에 인정하는 학점대체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신라대는 아래 본문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기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교양학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대는 교양교육원에서 공통교양을 필수로 신입생 전원에게 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 및 작문, 정보처리개론, 글쓰기, 실용한자를 학기별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http://cle.donga.ac.kr>).

하고자 한다.

4.1 부산대 교양교육원의 실용영어 프로그램

부산대 교양교육원의 현행 교양교육과정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교양필수 과목으로는 실용영어, 실용컴퓨터, 의사소통(말하기와 글쓰기)등 3개 과목이 있고 교양선택 과목은 7개영역에 380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는 실용영어의 교과내용, 교과이수 및 수업운영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uledu.pusan.ac.kr>).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용영어의 수준별 단계를 지정한 교과목 명칭과 원어민과 내국인 분반으로 나누어 팀티칭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 부산대의 실용영어의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과목명	학점	교과내용	
		내국인분반	원어민분반
실용영어 I	1	독해, 듣기 영역의 기초	말하기, 쓰기 1단계
실용영어 II	1	독해, 듣기 영역의 심화	말하기, 쓰기 2단계
실용영어 III	1	관심분야 및 전공분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말하기, 쓰기 3단계
실용영어 IV	1	관심분야 및 전공분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말하기, 쓰기 4단계
실용영어 V	1	운영안함	말하기, 쓰기 5, 6단계
실용영어 VI	1	토익 CAT토익 온라인 강좌	운영안함

다음으로 교과이수와 수업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래 (3)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첫 적용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학생들의 휴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교과이수에서의 특징은 단계별이수를 하도록 한 점이다.⁵⁾

5) 부경대의 경우에는 교양선택과목에서 중급영어회화는 토익650점이상자, 고급영어회화는 토익750점이상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음(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web.pkhu.ac.kr/~flec/>).

(3) 부산대학교 실용영어 교과이수

- (a) 2005 교육과정 이후 적용대상 : 실용영어 I~IV까지를 단계별 이수
- (b) 2004 교육과정 이전 적용대상: 실용영어 I~VI까지를 자유롭게 이수
- (c) 내국인 분반과 원어민 분반 중 한 분반만 Pass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Fail한 분반만 재이수할 수 있다. 다만 실용영어 V,VI은 제외한다.

한편 아래 (4)에 언급되어 있듯이 수업운영에서는 내국인과 원어민의 팀티칭 수업이 특징이고 원어민수업에는 30명 내외의 수강인원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회화수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4) 부산대학교 실용영어 수업운영

- (a) 실용영어(I, II, III, IV):
 - 내국인, 원어민 co-teaching 수업
 - 한 학기 15주 중 내국인 7주, 원어민7주씩 수업실시(중간고사 기간에도 수업을 실시)
 - 평가는 수업시간 외 공동실시
 - 예체능계열은 별도 운영가능
 - 내국인 분반과 원어민분반으로 나누어 수업하며 내국인분반은 70명 내외, 원어민분반은 30명 내외로 수강인원을 편성하여 운영(영어회화 수업의 효율성도모)
- (b) 실용영어(V, VI):
 - 실용영어V는 원어민반으로 운영하고, 실용영어VI은 CAT토익 온라인 강좌로 운영
 - 한 학기 15주 수업실시(중간고사 기간에도 수업을 실시하며, 평가는 수업시간 외 공동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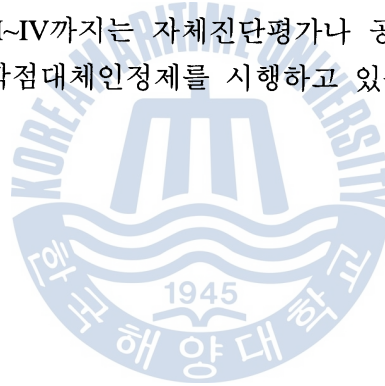
평가는 자체 마련한 CBT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어학력 진단평가(PNU CBT TOEIC 진단평가시험)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을 위해 학력진단평가는 매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격자 확인 이후(입학 전) CBT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수준별 그룹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준별 그룹편성 및 이수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부산대 실용영어 수준별 그룹편성 및 이수과정

구분	점수	이수과정	비고
상위그룹	40~33	"말하기시험"에 합격하면 실용영어 I 면제	"말하기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중위그룹과 이수과정 동일
중위그룹	32~16	실용영어 I 수강	
하위그룹	15~0	하위그룹 특강수강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진단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편성된 학생은 “하위그룹 특별강의”를 수강하여 “진단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를 Pass 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실용영어 I 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실용영어 I-IV까지는 자체진단평가나 공인영어시험점수에 따라 이수 면제를 시켜주는 학점대체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아래 <표7>과 같다.⁶⁾



6) 부경대의 경우에는 교양필수과목인 실용영어회화에 학점대체를 인정해주는 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B+이상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구분	TOEIC		TOEFL(CBT)		TOEFL(IBT)	
	실영(1)	실영(2)	실영(1)	실영(2)	실영(1)	실영(2)
A+	750	800	213	223	80	85
A0	700	750	207	213	76	80
B+	650	700	193	207	70	76

구분	IELTS		PhonePass		TEPS	
	실영(1)	실영(2)	실영(1)	실영(2)	실영(1)	실영(2)
A+	5.5	6.0	49	52	650	750
A0		5.5	46	49	600	650
B+				46	550	600

〈표 7〉 부산대 실용영어 학점대체인정을 위한 이수면제 신청자격

교과목명	면제자격						말하기시험	비고
	(A)진단평가/ 실용영어성적	(B) TOEIC	(C)TOEFL		(D) TEPS	(E) IELTS		
			CBT	IBT				
실용영어 I	진단평가 33점이상	800이상	225이상	86이상	713이상	6.0이상	객원교수 2명과 10분 내외 인터뷰 - 면제자격 A, B, C, D, E중 하나이상의 면제자격에 도달한 자는 "말하기시험" 응시자격을 취득 함) - "말하기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과목 학점을 취득함 - 실용영어 V·VI은 2004 교육과정 이전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	
실용영어 II	실용영어 I A+	820이상	230이상	90이상	736이상	6.0이상		상동
실용영어 III	실용영어 II A+	840이상	235이상	93이상	758이상	7.0이상		상동
실용영어 IV	실용영어 III A+	860이상	240이상	97이상	786이상	7.0이상		상동
실용영어 V	없음	860이상	240이상	97이상	786이상	7.0이상		상동
실용영어 VI	없음	860이상	240이상	97이상	786이상	7.0이상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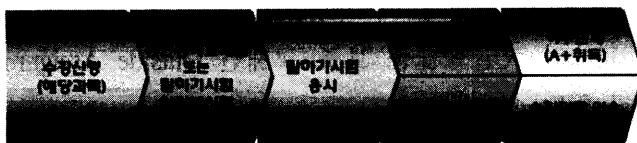
4.2 신라대 교양학부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

신라대는 2005년 1년간의 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간을 걸쳐 2006년 SEP (Silla English Program)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양영어 학습, 평가 및 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SEP System은 아래(5)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자체 개발하였다 (송원문 2007: 110).

(5) SEP System의 목적

- (a) 교양영어 전반에 걸친 분반별 표준화
- (b) 교양필수영어(SEP I - IV)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 (c) CBT를 통한 영어 관련 데이터 확보
- (d) 교양영어 학습 진도와 평가의 유기적 체계 확립
- (e) 미래 신라대학교 영어교육 정책을 위한 과학적 자료 확보

7) 말하기시험 응시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한편, 원어민과 내국인교수의 평가방법과 성적등급은 수준별 교과목에 따라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교육 단계는 아래 (6)과 (7)에 정리하여 보여주듯이,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4단계로 나누되 각 단계별 3학점 4시간제로 총 12학점에 16시간으로 많은 학점과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같이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의 팀티칭방식을 취한 점이 특징이다.

(6) SEP I, SEP II: 1학년 기초단계

- (a) 원어민 교수와 내국인 교수의 team-teaching방식을 취함.
- (b) 동일한 교과서 Unit에 대해 원어민 교수 2시간, 내국인 교수 2시간
- (c) 원어민 교수는 원본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 (d) 내국인 교수는 원본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를 사용하며, 외국인교수로부터는 학습받기 어려운 부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7) SEP III, SEP IV: 2학년 발전단계

- (a) 원어민 교수의 교육중점
 - 원어민 교수는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행동목표에 의하여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를 지도하고 측정한다.
 - 원어민 교수 시간에는 지식의 학습 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 (b) 내국인 교수의 교육중점
 - 원어민 교재와 관련된 행동목표를 취한 문법과 독해를 지도하며 원어민 교수 교육내용에 대한 선행학습 및 보충학습 업무를 담당한다.

영어회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어민 교수의 경우 분반 인원은 25명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교수의 경우 외국인 분반을 2개 합친 50명을 하나의 분반 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교재 또한 원어민분반 교재와 내국인 분반교재로 이원화하여 원어민분반 교재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된 교재를 선정하여 특히 영어의사소통의 accuracy와 fluency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통합, 문장구조, 문법, 어휘, 실제 발음에 근접한 Listening Speaking을 다루게 되고 내국인 분반교재는 보다 많은 학습량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보다 앞당길 목적으로 만들어 질 교재와 자율학습용 보조 교재인 Outside Assignment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8) 교재의 구성 영역

- (a) Culture Tips
- (b) Grammar
- (c) Vocabulary Extension
- (d) Useful Expressions
- (e) Audio Script
- (f) Reading Materials

팀티칭에 의한 수업의 평가방법은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의 평가를 같이 20%로 하고 출석도 같이 5%씩 배분하되 CBT 시험을 50%로 하여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지 교수별 20%의 평가 중 원어민은 과제가 5%로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2회 과제부여하고 과제물은 Comment와 함께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Quiz는 10%로 수업 중 2번 평가하도록 한다. 한편 내국인 교수 평가는 과제가 10%로 2회 부여하고 Quiz는 5%로 수업 중 2번 평가하도록 하여 원어민의 과제물점점에 많은 배분이 가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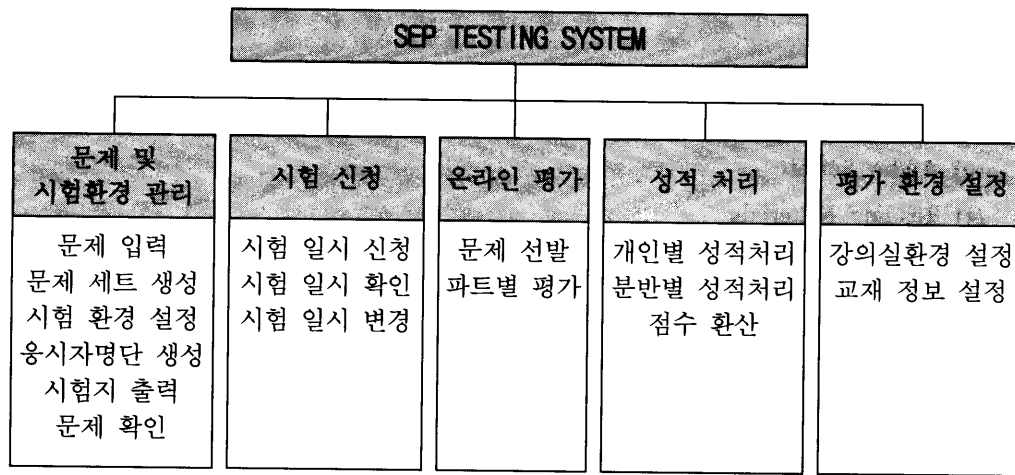
그러면 평가의 50%를 차지하는 CBT 시험의 체계를 살펴보자. 다음은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 SEP CBT Test System의 개발 내용을 보여준다.

(9) SEP CBT Test System 개발내용

- (a) 200명 이상 동시 평가가 가능한 웹 기반 평가 시스템
- (b) 웹브라우저외의 별도 S/W가 필요 없는 간편한 평가 시스템
- (c) 평가 직후 개인별 채점 결과가 확인되는 평가/채점 시스템
- (d) 난이도별 평가 파트별 문제 출제 시스템
- (e) 학생 개인별 시험일시 신청 및 변경 시스템
- (f)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평가 시스템
- (g) 단위별 채점 및 점수 환산 시스템

또한 SEP 평가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프로그램 구성



이러한 시스템개발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SEP 학습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SEP 과목 평가에 필수적인 멀티미디어 환경이 지원되는 온라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평가 및 채점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 즉시 채점 기능과 부정행위 방지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준다고 본다. 둘째로, 강사와 분반에 관계없는 일관된 SEP 강의 질 담보로 문제 POOL에 의한 평가문제의 공정성 확보가 된다는 점이다. 끝으로 SEP 평가에 필요한 평가경비, 공간, 인력의 절감이 된다는 시간절약과 경비절약의 경제적인 측면도 강조한다. 즉,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시험 일시 신청 및 실시가 가능하고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적은 인원으로 엄중한 평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신라대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 SEP CBT Test System의 한계는 경제적인 지원상의 문제로, 말하기와 쓰기의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말하기와 쓰기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최초 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는 들어가 있었으므로 2008년 1년 동안 개발하여 시연과정을 거쳐 내년 2009년부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5. 결 론

앞서 2절에서 최근 4년 동안의 우리대학의 신입생들의 외국어(영어) 수능등급을 분석하였고 3절에서는 우리대학의 기초필수교양교과목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4년간의 영어 수능 입시성적을 조사한 결과 중위권 3등급에서 4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신입생들의 영어 실력편차가 두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상위권의 그룹과 하위권의 그룹이 각각 한개 이상의 분반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영어교과목은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수업 또한 수준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용영어와 실용컴퓨터의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나 토익, 텡스나 토플 등의 공인시험의 일정수준이상의 점수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초 교양필수 교과목의 이수 혜택을 주어 영어회화중급과 영어회화고급 등의 심화학습에 선택하도록 하여 저학년때 어학실력을 다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준별 교과목운영과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근 대학의 실태와 현황을 4절에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의 교양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의 시스템과 신라대학교 교양학부에서의 교양영어 학습 및 관리표준화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대학의 교양영어와 컴퓨터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말하기와 쓰기시험 평가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리대학도 앞서 소개한 부산대와 신라대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통합운영 및 CBT 및 iBT 수업과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자체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들 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자체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미래 우리대학의 영어교육 정책을 위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4개 단과대학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에서는 교양영어와 컴퓨터교육의 기초 필수교양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다음 교과과정 재편성 시 고려하여야 한다.

- (11) 우리대학의 교양영어 운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 (a)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교양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원과 같은 전담기구에서 교양필수과목을 통합운영.
 - (b) 선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적정 CBT(컴퓨터기반시험) 영어시험을 통하여 수준별 교과목 운영.

- (c) 상위권의 영어수준의 분반에는 성적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
- (d) 공인성적이나 자격증으로 학점대체인정제 실시.
- (e) 외국인강사와 영어우수학생을 활용하여 영어전용카페를 교양영어 전담기구가 직접 운영하여 방과후의 교육효과를 갖도록 함.

그리하여 본 연구가 우리대학의 기초교양교과목의 재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기초교양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나아가 교양영어교육의 표준화 및 맞춤형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CBT시험관리시스템의 자체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송원문. 2007. 교양영어 학습 표준화 관리시스템: 신라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2007학년도 춘계 대학교양협의회/한국교양교육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105-119.
-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http://cle.donga.ac.kr>)
-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web.pkhu.ac.kr/~flec/>)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uledu.pusan.ac.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